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다음 주일(12월 3일)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 지역별사랑방 방모임은 이번 주까지 모이고 겨울 동안에 쉽니다.
- 디아코니아사랑방과 그루터기사랑방은 전체 심방을 마쳤습니다.
- 성서일기는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29일(수)부터 시편으로 바꿉니다.
- 이충환집사 아버지께서 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 멧쟁이학교 종강발표회가 12월 2일(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장미숙 권사 ( 감사 )  
최요한 목사 · 황성자 사모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48 호

2023년 11월 26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교회,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1)

- [빛과소금] 11월호 주제 '헤어질 결심'에 실었던 정태일목사 글을 2회에 걸쳐 옮깁니다 -

사랑방공동체에는 나무들이 많다. 지금은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져 쌓이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 황량한 분위기를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 봄이 오면 나무들은 가지에서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될 것이다. 매년 계절에 따라 어김없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나는 봄이 되면, 나무 가지에 돋아나는 연두색의 어린잎을 바라보면서 신비함을 느낀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며 생각을 한다. 아무 것도 없고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잎들이 돋아날까? 그리고 이내,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봄에 새로운 잎을 싹틔우는 나무는 새로운 나무, 성장한 나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성장한 새로운 나무가 되려면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그 잎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생명의 원리는 참으로 신비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신앙공동체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헤어져야 할 것에서 헤어져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한국교회가 헤어져야 할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

일만 잘하는 교회.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다. 교회의 안과 밖에서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 따라, 조직의 자리와 역할에 따라, 시간과 열정을 다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교회가 이렇게 일에 열심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가 하시던 일을 계승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일에 우선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교회가 복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초대교회에서 하루에 3천 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교회의 삶을 통해 복음의 결과를 증거 받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는 관공서나 사업체, 복지단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신앙공동체이다. 이제 일만 잘하는 교회와 헤어져야 할 때이다. 성령안에서 누리는 의(정의)와 평강(평화)과 희락(기쁨)의 삶을 채워서 교회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약점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것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추구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대신(우상숭배)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버리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게(개혁)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교회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을 교회의 주인으로 착각하는 경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를 운영하기보다 특정한 개인이나 다수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또 사람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박수는 사람에게 칠 때도 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교회(부정적인 의미로)에서는 교회,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에 관한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정과 인간관계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한국교회는 믿음과 인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교회, 사람이 주인인 교회에서 헤어져야 할 때이다.

## 한주간의 말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 전도서 7장 18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14 369 414 / 393

기도 :

성경 : 욥기 42장

제목 : 욥과 세친구의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

1-6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다.

해석: 욥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게 된 것은 듣고 알  
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는 직접 경험이다.

•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

적용: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회개하자.

7-9 세친구가 욥에게 용서를 구하다.

해석: 그리스도인 사이에 말로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해결과  
사람사이의 해결을 다 해야 한다.

적용: 사건(오해, 위로 등)의 끝맺음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 관계를 해결하자.

10-16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다.

해석: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적용: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자. 과정 중에 있다면 믿음으로 기  
도하며 기다리자.

## 김장

김장 당일에 비가 온다는 소식에 전날 수요일 노작시간에 미리 김장  
준비를 하였다. 배추 뿌리를 잘라서 깨끗이 정리해 옮겼다. 배추가 생각했  
던 것보다 건강하고 안이 꽉차있어서 신기하고 뿌듯했다. “내 배추가 켈  
크다.” “벌레가 많다.” “잘못 잘랐다.” 등등 사소한 것들에 웃고 떠들었다.

목요일 오후. 1,2학년은 양념 재료들을 다듬고 3~5학년은 배추를  
반으로 자르고 소금에 절였다. 나는 배추를 반으로 자르는 역할이었던  
데 배추가 얼어서 퐁퐁 언 아이스크림을 쪼개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그 느낌이 좋았는데 갈수록 손이 퐁퐁 얼고 감각은 없어졌고 그때에  
다른 친구가 역할을 바꾸어주어 정말 고마웠다. 비가 오고 추운 날씨  
였지만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멧쟁이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다.

저녁을 먹고 고학년들은 자연예배당에 모여 양념에 쓰일 재료들  
(무, 양파, 파 등등)을 썰고 갈았다. 양파를 써는데 일 년간 흘릴 눈  
물을 다 흘렸다. 양 옆을 보니 다들 벌건 눈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웃고 있었다. 이안이는 고글까지 썼는데 처음에 보고는 약간 (아니 많  
이) 비웃었다. 하지만 곧 필요성을 느끼고 부러워했다. ㅎㅎ

우리가 무 한 개를 썰 때,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이미 세 개를 써시  
고, 일정한 간격으로 거침없이 칼질에 역시 경험의 차이는 대단하다고 느껴  
졌다. 나중에 먹을 때 얇고 비뚤게 썰린 무를 보며 추억이 생각날 것 같다.

금요일 아침. 대망의 파이널 배추에 소를 넣는 작업, 배추의 양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이걸 한 시간 만에? 우린 그걸 해냈다. 배추를 통  
에 넣을 때는 자른 단면이 위를 향하게 두어야 양념이 제대로 배일 수  
있다는 것과 배추 소를 넣을 때 완벽하게 다 안 넣어도 김치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양념이 고루 퍼져 맛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공동체 김장을 마무리 했다. 추웠지만 웃고 얘기하느라 뜨  
거웠고, 힘들었지만 서로의 응원과 도움으로 편안하고 행복했다. 함께  
한 모든 공동체 식구 분들과 멧쟁이들에게 정말 고마웠다. 살아있어  
맛을 고루 퍼지게 만드는 김치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함께 살면  
서 맛을 내는 공동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김장을 통해 삶  
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ps. 너무 즐겁게(열심히) 김장을 한 나머지 감기에 걸려 일주일을 앓  
았다...^^;; 모두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푸른꿈사랑방 진시우 학생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11 : 28-30 인도자  
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3 : 23-24 인도자  
293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전도서 7 : 13-18 설교자  
505 그루터기사랑방  
“ 사랑, 허무를 이기는 비결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02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승호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공동기도문

### 사랑, 허무를 이기는 비결

전도자의 고백.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땅을 관찰하니 딜레마가 있는데,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이상적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허무주의 도래.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로만 세상을 보려고 한 결과,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은 공평해 보이지만, 실상은 공허함 뿐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미세한 원자 세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자연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더욱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자연에서는 무자비한 냉혹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 허무를 이기는 비결. 하나님께서 물질세계를 뚫고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을 때, 상황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교제할 대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완전한 신분의 상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드러내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 저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허무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영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쌀과 도자기의 고장, 이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 날에는 설봉공원 안에 있는 시립박물관에서 도자문화역사실 위주로 관람을 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도자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숙소 에 와서 그 도자기를 기억하며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숙소는 이천농업테마파크 안에 있는 펜션이었는데 주변에 작은 다 랑이 논도 있고 쌀 문화관과 큰 가마솥, 넓은 잔디밭, 그네, 놀이터도 있어서 구경도 하고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이천 쌀로 쌀 비누와 쌀 피자 만들기를 했습니다.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만든 피자를 즉석에 서 먹었는데 꾸러기 세 명이 한 판을 거뜬히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 해 마지막 여행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홉 명의 꾸러기들의 마음이 한 해 동안 쑥 자란 것을 여행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 다.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며 함께 어울려 잘 놀았습니다. 함께 지내 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학년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충남 공주와 부여로 다녀왔 는데 첫날과 마지막날 박물관을 돌며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와 유적을 살펴보고 둘째날에는 공주 시내의 제민천 주변에서 나태주시인의 문 학관, 기독교박물관, 박찬호기념관, 공주독립운동기념관을 조별로 돌 아보고 예쁜 카페에서 맛있는 차 한잔하는 여유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 공주에 계시는 채영대집사님, 장지영권사님께서 첫 날 많은 글을

가지고 숙소로 찾아오셨습니다. 깜짝 방문으로 여행의 묘미를 더해주 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제 어린이학교는 24년 1월에 6학년들의 졸업여행을 제외하곤 이번 학기에 어린이 전체가 함께 하는 여행은 모두 다녀왔습니다. 돌아보 니 참 여러 곳을 다녔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함 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며 감기로 인해 고생하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데 얼른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이번주도 얼마 남지 않은 2학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내는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11월이 저물어감에 따라 2학기의 끝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A형 독감 등 병결이 불가피한 멋쟁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일에 등교하면서 건강에 유의하는 주간으로 보냈습니 다. 6학년들도 수능 이후로 다시 돌아와 반갑게 회포도 풀고, 함께 학기 마무리를 위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학생 자율평가서도 어김없이 열린수업 시 간에 작성했습니다. 한 학기동안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평가하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멋쟁이들은 항상 고심을 거듭하며 쓰곤 합니다. 거기에 더해 다녔던 여행이나 성서일기 범위 등 학교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빼놓지 않기 위해 여러 장으로 쓴답니다.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한 학기를 정리하는 학기말 개별면 담이 시작됩니다. 그 끄트머리에는 멋쟁이들이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강발표회가 있습니다. 더이상 아픈 사람이 없이 학기의 마무 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 어린이학교 학년말 여행을 다녀오다

11월 20일(월)~22일(수) 어린이학교 학년말 여행을 공주로 다녀왔다. 여행 전 주부터 조별 친구들과 가보고 싶은 곳과 먹어 보고 싶은 것을 알아보고 왔던 터라 살짝 설레기도 하고... 왕복 7시간 넘는 운전을 해내는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코로나와 독감이 도는 시기라 긴장도 하였던 여행 기간이었지만 무사히 잘 다녀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의 유적지 중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공산성을 걷고, 백제의 벽돌무덤 굴식돌방 무덤인 무열왕릉을 보며 감탄하고, 시장에서 맛난 국수집을 어렵게 찾아 한 그릇 똑딱 하고, 간식도 만나게 먹으니 힘이 솟았다. 미니 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야구선수 박찬호 박물관과 나태주 시인의 풀꽃 박물관에 가서 아름다운 시도 보고, 유관순열사 관련 영명학당도 가보았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국립부여 박물관을 들러서 백제금동대향로를 실물로 보고 왔다. 우리나라 손재주가 세계 최고!! 한 눈에 봐도 최고!!

이번 여행에서 아이들과 백제 문화를 알게 되어 좋았다. 아이들과 함께 시장을 가는 길에 만난 아저씨는 저희를 보고 “아이들과 함께 공주에 이렇게 놀러와 줘서 고맙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좋고,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신다. 시장에서 여러 할머니들께서 “아이를 많이 낳고(?) 이렇게 시장까지 와서 고맙다.”고 하신다. 그리고 듬뿍듬뿍 싸 주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길에서 만난 분들께 더 신나게 큰 목소리로 꼬박꼬박 인사를 했다. 공주에 계신 채영대, 장지영 집사님께서 굴을 듬뿍 사 오셔서 아이들이 실컷 먹었다. 어린이학교 친구들이 참 복이 많은 것 같다.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 15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 몸이 아프고 딸릴 때면 아이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 했다고 등교 시간이 되면 여기저기서 얘기한다. 참 고마운 천사들이다. 기도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과 사랑방식구들이 있어 참 좋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부관계가 들통 났지만 ~ 늘 부인을 잘 섬기는 남편이 있어 행복하다.~^^

그루터기사랑방 이현숙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421, 435

성 경 : 에베소서 2:1-10

말 씬 :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4일간 휴전협정을 했습니다. 인질들이 휴전기간 동안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가고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오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헤세드 공동체>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헤세드공동체에 새롭게 함께 생활하게 된 두 목사님 가정이 잘 적응해서 헤세드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 꾸러기학교, 어린이학교 여행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 \* 심방이 잘 진행되어서 교회 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 \* 감기와 독감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 < 생활공동체 소식 >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 어느 것이 주범인지 모르게 뒤섞여 학교를 비롯한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한 한주였습니다. 공동식구들 중에도 독감에 걸려 힘든 한 주간을 보낸 분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꾸러기학교와 어린이학교는 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왔고, 생활공동체는 심방을 은혜가운데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영하의 완연한 겨울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시설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